

창조의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창세기 1장

(1:2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1:27)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2:8) ¶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2:15)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2: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18) ¶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2:19)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2:21)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2:22)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문제]

위의 [창조의 시작부터](#)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다음 셋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 (1) 6일 창조의 시작부터
- (2) 사람 창조의 시작부터
- (3)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출제 문제인 것 같아도 창조론, 재창조론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번이 맞으면 안 되고, (2)번이 맞으면 재창조론이 무사하고, (3)번이 맞으면 재창조론이 종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정답이면 좋겠습니까?

사전에 정답을 선호하시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기록에 따라 답을 찾아야 합니다.

(벧후 1: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막 10:6-9

(10:6)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10:7)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10:8)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10:9)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위의 9절을 보면, '그러므로'가 힌트입니다. 즉,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므로, (7-8절: 둘이 결혼하되),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므로, (7-8절: 둘이 결혼하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맞음

어디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이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짝지어 주셨나요?

- (1) 언제: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심)
 -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 1:27)
- (2) 어떻게: 창 2:19-23

어떻게 짝지어 주셨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코멘트
(2:18) ¶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짝을 만드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2:19)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브를 만들기 전에 들짐승과 날짐승을 한 번 더 지으셨습니다(아마도 암컷?). 아담한테 선 보여 주시려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시기 전에 애들아, 아담한테 잘 보여라. 너희들 자태를 맘껏 뽐내어 봐라. 하셨을지도 모르니다. ??) 그런데 아담은 그들을 이성으로 보지 않고 이름만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그 어느 것도 ‘여자’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가 네 짝을 못 찾았구나.”하시고 가축, 날짐승, 들짐승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2:21)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지금까지 아담이 헛수고만 잔뜩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었죠. 저런 놈들에게 한눈 팔

<p>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2:22)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p>	<p>아 봤잖아 아무 소용 없어. 피곤하기만 하네. 잠이나 자자. 하나님께서 곤히 자는 아담에게 잘 자라고 부채질을 하셔서(?)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아담이 잠든 틈에 아담 몰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담이 자다가 깨어서 볼까 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 봐요. 드디어 아담이 기분 좋게 자고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담을 깨우지 않으시고 잠이 깰 때까지 기다려셨습니다. 혹시라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자를 데려가면 초면인데도 성질 낼지도 모르니까요. 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나올까요? 바야흐로 맞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p>
<p>(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p>	<p>다른 말은 다 패스. 아담이 이름을 또 짓네요. 무슨 들짐승이나 날짐승한테 하듯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이름이 '여자'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p>

* 위의 코멘트에는 비성서적인 행위(하나님의 말씀에 추가)가 곳곳에 가해져 있으니 새겨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나요?

- 아니요.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셨어요.

그럼, 그런 다음 곧바로 여자를 만드셨나요?

- 아니요. 들짐승도 만들고 날짐승도 만드셨어요. 가축도요.

그런 다음 여자도 만드셨나요?

- 아니요. 가축하고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만나서 선보고 이름 짓고 했어요.

아, 그러면 처음에 남자 만들고,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제일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네요. 시간도 꽤 걸렸겠습니다.

- 네에.

이제 [문제]로 돌아 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문제]

위의 **창조의 시작부터**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다음 셋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 (1) 6일 창조의 시작부터
- (2) 사람 창조의 시작부터
- (3)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틀린 답] (2)번

그러면, 정답은 (1), (3) 중에 있습니다. 재창조론의 답은 틀렸네요.

- (1) 6일 창조의 시작부터가 답일까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검토해 봅시다.

6일 창조의 시작은 언제죠?

- 첫째 날이요.

아담과 이브는 몇째 날에 창조되었다고요?

- 여섯째 날이요.

그러면 (1)번은?

- 틀렸어요.

네, (1)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럼 정답은?

- (3)번이요.

네. 학생들이 (3)번이 정답입니다.

왜 (3)번이 정답인지는 홍승대 형제의 게시판 글 698번 (창조의 시작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3: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

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And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ith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되는지 질문한 것이 대해, 막 10:6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암수로 구별해서 지으셨지만 사람처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짝짓는 것이라는 뜻도 알게 되고요. 아담과 이브만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이 깨어 자기 눈으로 보고 맘에 들어서 OK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자에게 여자를 짝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짝지어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 여자,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백년해로할진저!

[뒷풀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1) (2) (5) (3) (4)

딤후 3:16에 의해 요소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창조의 시작부터:	부사구(시간적 언급)
(2)	[하나님]께서는:	주어
(3)	그들을:	목적어 (사람들)
(4)	남성과 여성으로:	목적보어
(5)	만드셨으니:	동사

재창조론자들의 주장:

강조를 하기 위해 부사구 "(1) **창조의 시작부터**"가 문두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내서 비강조 문장으로 고쳐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But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2) (5) (3) (4) (1)

해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즉, 사람들)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재창조론자들이 고쳐 쓴 성경 기록에서 'the'를 주목합니다.

But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먼저 영어 단어 'the'를 사전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the¹

(정관사)

1.

(1) (이미 나온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그, 저

I saw a dog. The dog had a piece of meat in his mouth.

(2) (이미 나온 사람·사물에 관련된 것, 또는 그 부분을 언급할 때) 그

There was a large tree there. The leaves were also large.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다. 그 잎도 역시 컸다.

(3) (이미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상황·일상 생활에서 지시 대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명사에 붙여서) (※「그」 등으로 해석하면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I've just been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갔다가 오는 참이다

(4) (한정어구를 수반하는 명사에 붙여서)

the book you gave me

당신으로부터 받은 책

2.

(1) (고유 명사나 그에 준하는 것에 붙여서)

the Atlantic 대서양

'the'는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거의 처음에 알게 되는 단어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문제를 풀자니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사전의 정의를 보면, 재창조론 입장에서 쓴 위의 초록색 문장에서 'the creation'의 'the'는 **(1) (이미 나온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그'란 뜻입니다.

But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즉, 사람들)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조론 입장에서는 부사구가 앞에 있는 그대로 파란색 문장인데, 그 때의 'the'의 뜻은 사전의 의미 중 **(3) (이미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상황·일상 생활에서 지시 대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명사에 붙여서) (※「그」 등으로 해석하면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사용하는 'the'로서 '그'를 붙이면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문장에서는 'the'가 사전의 의미 **(1) (이미 나온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그'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남자와 여자가 위의 예수님 말씀에서 '이미 나온 명사로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부사구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가 뒤로 가면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로 되면서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the'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이 적용되게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기록이 문장의 일부가 기록된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기록된 단어들을 뒤로 돌리는 것은 성경 번개가 되겠네요. 뜻을 변경시키게 되니까요.

그러면, 뒤로 돌리지 말고 앞에 있는 그대로가 옳은 것이죠. 번개되지 않은 그대로가 말입니다. 원래의 위치대로 둔 상태에서의 뜻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창조입니다. 사전의 의미 (3)을 보면 이 경우 '그'라고 해석하면 부적당한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말의 '그'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야 '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니까 앞에 언급하지 않은 창조를 '그'라고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흡정역 성경에서는 '그'를 붙이지 않고 잘 번역하였네요. (창조의 시작부터)라고요.**

여기서 일단,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번역된 것은 올바른 번역이다. 사람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 번개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시작부터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영작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man(또는 me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또는

But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rom the beginning of their creation.

이렇게 표현된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사구를 뒤로 배치하지도 않으셨고, creation 뒤에 'man(또는 men)'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의를 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대로 '창조의 시작부터'입니다. 부사구를 뒤로 옮긴다든지 없는 수식어를 마음 속으로 creation 뒤에 붙여서 읽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

(내용 추가 2015년 5월 1일)

재창조론에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막 10:6의 '창조의 시작부터'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시작부터(from the beginning)**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6). 창세기 1:1절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27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날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스스로 이 구절이 하늘과 땅의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수정. 2015년 4월 20일(내용 보충)

쉽고 단순한 진리!

그러나, 제 글에서 기술한 바처럼 이 주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의 흙으로 아담만 지으셨지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만들어 두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고도 단순하고 바른 진리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오류를 인터넷 웹사이트 첫 페이지의 상단에 커다랗게 올려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글을 게재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더 이상 비진리가 판치고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추가 글을 게재합니다.

목회자도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닌 작은 한 사람인 제가 부탁드립니다.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는 목회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협력하고, 또 누구든지 진리의 목소리가 들리면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히 그것을 수용하여 하루속히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진리를 쉽고 단순한 진리로 포장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기가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제 글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은 모두 많은 적든 실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고치고 나면 되고, 그때부터는 모두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모자라는 한 사람의 진심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